

믿고 찾을 수 있는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계기2동 1140-55
TEL:967-8133 FAX:965-0643

“관리책임 무시한 단속”

농민반발, 재배단계서부터 품질관리 돼야

시중 유통 한약재에서의 유해물질 검출 보도에 이어 정부의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에 대해 수확기를 앞둔 생산농민들은 ‘대안없는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국 속에서 지난해 생약 생산량도 판로를 찾지 못해 재고로 쌓여 있는 마당에 이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해 금년도 수확할 약재를 과연 판매할 수 있을지 수확기를 앞두고 생산농민들은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전주시 이승엽씨(생약협회 전북도지부장)는 “표백제가 검출된 작약 길경등 약재의 경우 주로 연탄건조시설을 이용해 오고 있는데 연탄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표백성분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지금 산지에서는 햇것이 출하돼 나오는데도 마땅한 건조기술 기준이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 했다.

특히 “토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농촌 현실 속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 품목별 고시된 적용약제도 없고 개별 중금속 시

험기준도 설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책임을 무시한 법적용’은 범법자를 양산할 뿐”이라는 것이 생산농민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중금속이나 농약잔류검사는 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으나,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표백제 검사방법은 도 보건연구원에서는 시설 미비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검사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대안도 없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농민들은 “이같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정부가 대안 없는 단속으로 일관함으로써 농민이 수확한 약재를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누가 더 이상 생약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라며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기준설정과 대책강구를 호소했다.

또 “한약재 품질관리는 보다 근본적 단계인 생산과정에서부터 지도 관리됨으로서 생약생산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살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만 생약재배 농민은 더 이상 정부의 대안 없는 단속에는 따를수 없다”고 밝히고 “청정약재 생산을 위한 재배법 및 건조기술이 농가에 충분히 지도 보급됨으로서 생산단계에서부터 한약재 품질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현검사제도를 앞으로 1년간 유보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국산한약재 상설매장내에 마련된 수입,국산 비교 전시대에서 식별요령에 대해 임연학 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훈 농림장관 협회방문 한약재 품질인증제 도입검토 지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9월 30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약재거래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방문했다.

상설매장을 찾은 김장관은 규격포장된 국산한약재를 꼼꼼히 살펴본후 “국산한약재도 이제 품질인증제를 도입할 때”라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약재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해 재배한 약재와 구분 표기토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후 유통한다면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담당공무원에게 한

약재 품질인증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약재가 시중에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농검에서 지도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한약재 중금속 검출 파동이후 식약청의 지

도단속 강화방침과 관련하여서는 “생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현실적인 기준치가 설정돼야 할텐데”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아울러 김장관은 생약협회 관계자들에게 “어렵더라도 용기를 갖고 청정약재 생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생약협회 창립이래 농림부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정희〉

지 면 안 내

- 긴급진단 / 한약재 중금속및 표백제 검출파동 이후3면
- 약용작물 작황과 시세동향4면
- 특별기고 / 천마재배법과 전망 ㉠5면

생약협회 회원을 위한 「생약인 단체보장보험」 탄생!

IMF 한파에 따른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생약농업육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교보생명이 「생약인단체보장보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생약협회 회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혜택 1 전연령 단일요율 적용으로 보험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 ▶ 남자보험료 36,100원 여자보험료 18,600원
(개별가입시 40세 10만원대, 50대 15만원대, 60세 25만원대입(남자기준))

혜택 2 개별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협약체결로 간편한 가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 개별가입시 위험직 적용으로 보험가입 제한
- ▶ 개별가입시 암보장 관련 전건 진단
- ▶ 개별가입시 응급치료 및 재해입원특약 가입 제한

혜택 3 「한국생약협회원」만의 필요보장급부로 설계된 기획상품입니다.

- ▶ 재해사고시 최고 7억2천만원 보장
- ▶ 고액의 암치료비 지급(특정암 4,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 ▶ 재해사망시 7천5백만원(휴일), 5천만원(평일)
- ▶ 암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특정암 2,000만원, 일반암 1,000만원)
- ▶ 교통사고(4일이상 입원) 응급치료자금 15만원(주말), 10만원(평일)
- ▶ 재해입원사(3일초과 1일당 20,000원)

혜택 4 만기시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 만기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환급으로 저축 효과
(매월 남자 : 29,000원, 여자 : 14,000원)

한국생약협회 **교보생명**